

“시정 현안, 보고·체험하고 점검한다”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발한 현장 확인 나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전반기인 지난 2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처리 의안 건수는 모두 762건. 제7대 시의회의 같은 기간동안 처리 안건수(583건)와 비교해 30.7%나 늘었다.

부산시의회는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시정현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활발히 펼쳤다.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6월에도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발로 뛰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6월 4일 동해선 원동역을 찾은 모습.



부산시의회는 6월 한달 동안 활발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사진은 지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구 부산민중공원 사료관을 찾은 모습).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현장 점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승환, 이하 기획행정위)는 지난 6월 10일 부산시 공유재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가 지난 6월 5일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이다. 부산시는 최근 수리조선 기술센터 부지(영도구 대평동) 등 8곳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1곳을 매각했다. 기획행정위는 9곳의 변경된 공유재산지역 중 사상구 학장동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예정지 등 6곳을 둘러봤다.

경제문화위, 관광 인프라 확인 나서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부민, 이하 경제문화위)는 부산지역 관광 인프라 확인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부산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산업 현황과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제문화위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6월 2일 부산역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흰여울 문화마을, 오륙도스카이워크, 남구 평화공원, 부산 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과 예산 집행 적정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예산특위, 동해선 원동역 등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경민, 이하 예결특위)는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예결특위는 지난 6월 4일 올해 3월 개통한 동해선 부산 원동역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부산시 재해구호물자를 보관 중인 전국재해구호협회 함양물류센터를 방문했다. 특히 센터 방문을 통해 구호물자 비축 현황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지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또 취학 전 아동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사업 현장도 체크했다.

구경민 예결위원장은 “사업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_hkcho@korea.kr

“원전 안전 관리 부산시 권한 늘린다”

[화제의 조례]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권한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리원전을 현장 점검하는 모습).

부산지역 원자력 시설 추가 건설 금지와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시설의 조기 폐쇄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제287회 정

례회에서 제정된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가 그것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

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원자력 시설 추가 건설을 하려고 할 때, 부산시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과 조기 폐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시민 소통과 정보 공개 강화, 방사능 방재 교육과 훈련, 방재 대책 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원자력 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